

09

2021. 353호

중요로운 미래의 땅, 핏찬장수

뜨개고추 푸른 장수



장수사과



거리는 띄우고 마음은 가깝게

추석기간 동안 가족과 친척 간의 따뜻한 정을
만나서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2021년 9월 353호



04 장영수 군수 인사말

풍요로운 장수

- 06 코로나19 기획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더 살기좋은 장수군을 위하여
- 10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백신 맞고, 한우 먹고, 사과 먹고!
- 14 소통 · 공감의 현장,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

미래의 땅 장수

- 16 포토스케치
- 18 장수에 왜 오(5)고 싶고, 살고 싶지?
- 20 가야특집 "가야공감"을 위하여
- 24 산동네 장수의 몸보신 어탕을 아시나요?
- 26 산림자원이 풍부한 힐링도시 '장수'

힘찬 장수

- 28 카드뉴스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
- 30 장수표 농특산물, 잘 팔았네! 다 팔았네!
- 32 의회소식
- 38 소식 열린군수실 운영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 받아가세요. 이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우편 전북 장수군 호비로 10 '논개고을 푸른장수' 전화 기획조정실 063)350-2068 메일 jangsu7@korea.kr
발행일 2021년 9월 (통권 제353호) 발행인 장수군수 발행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디자인 퓨전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장영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군수 장영수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지금 익숙한 모든 것들과의 결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과 ‘언택트’로 통칭되는 새로운 문화는 인류에게 멈춤을 요구하고 있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올해 장수군정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를 유치하고, 2018년 국·도비 2,236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2021년 본 예산을 4,259억원으로 끌어올려 민선7기 임기 내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 장수 7대 군정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인 5·4·8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가장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방역태세를 갖추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차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으며, 다가오는 10월 장수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킬 예정입니다.

장수군의 미래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힘센 장수 7대 군정 목표와 장수 5·4·8정책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이뤄내 과거의 장수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군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열린군수실’ 운영과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의 장을 펼치는 ‘소통콘서트’ 등의 자리를 마련해 장수군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군민들과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장수군수 장 영 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더 살기 좋은 장수군을 위하여

코로나19 군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변이에 이어 람다변이 감염률이 높아지며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팽배하다. 장수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방역체계를 세워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선별진료소



▲ 감염병대응팀



▲ 장수군접종센터



▲ 고3학생 코로나19 백신접종



▲ 75세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봉사활동

쫄쫄한 방역체계 구축에 총력!

장수군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장수군은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 협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겪었다. 이에 장수군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고령층으로 카드와 휴대폰 사용률이 낮아 동선 파악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라 판단해 각 읍·면에 특별선별진료소 8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군민 전수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조기 차단에 성공했다.

장수군은 그동안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다.

빠른 대응으로 확진환자 선제 조치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델타변이 확산세가 빨라진 만큼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을 통해 군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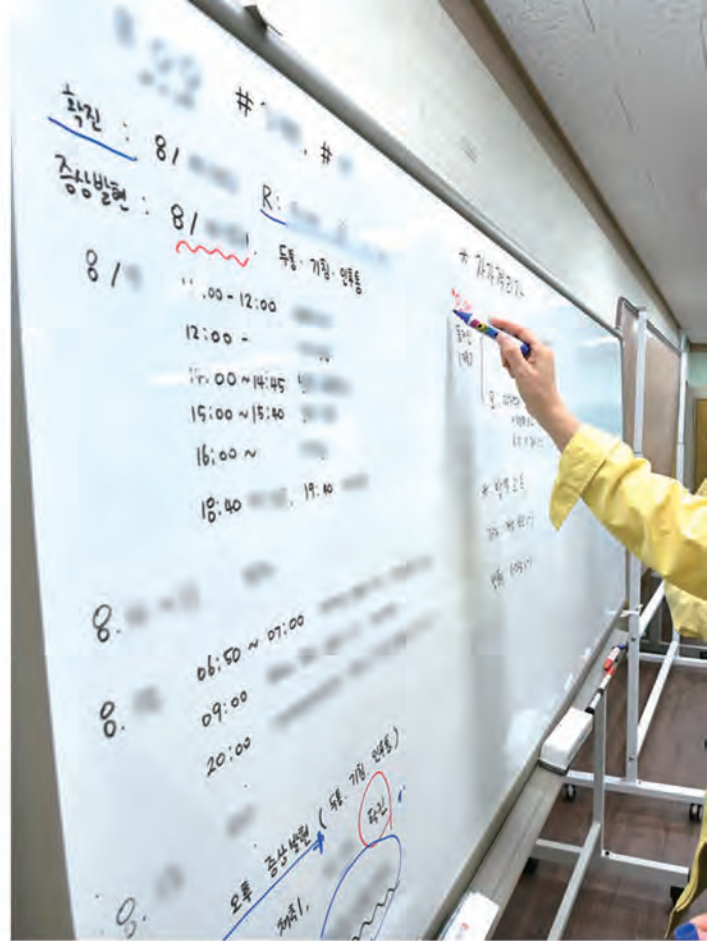


“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함께’라면 언젠가 오늘의 이 치열한 싸움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의 최전선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다.

”



▲ 감염병대응팀



▲ 꼼꼼히 소독하는 방역팀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달려가는 ‘방역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바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집, 시설 등을 소독하는 방역팀이다. 확진자가 나타났다 하면 언제, 어디든 출동하는 방역팀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방호복을 절대 벗을 수 없다. 군데군데 꼼꼼하게 방역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감염병대응팀’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확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며 감염 경로와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는 감염병대응팀이다. 이들은 확진자의 유선연락, 카드내역 등을 조사해가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짚는다. 또한 확진자가 타고 내린 대중교통 CCTV까지 분석해 사람들을 찾아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로 뛴다.



◀ 화이자접종
▼ 장수군백신 접종센터



▲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더위가 와도 계속되는 '선별진료소'

연일 전국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발생 근교 읍·면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세우고 쉴 새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무더위에 군민들도 지쳐가지만 방호복에 각종 방역장비까지 겹쳐 입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료인 역시 지친다 마찬가지다.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방호복은 내부의 열도 밖으로 빼낼 수 없어 5분만 입고 있어도 땀이 흥건해진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선 '감염병관리팀'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장수군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백신수송부터 접종까지 준비한 감염병관리팀. 이들의 노력으로 장수군은 현재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률이 70%에 달하며, 9월 말까지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백신접종 예약 및 문의 전화에 의료원 불이 꺼진 후 밀린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군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일상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백신맞고, 한우먹고, 사과먹고!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온·오프라인
100% 즐기는 방법



대한민국 대표 레드컬러(Red Color) 테마 축제

안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다!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테마로 이미지화 한 대한민국 최초의 축제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Red color 농특산물을 테마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는 농축산물 축제이기도 하다.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자연에서 펼쳐지는 농촌체험축제이자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소중한 정성이 만들어진 최고의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웰빙 축제!

축제는 제25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2일차에는 군민체육대회, 임업인 한마음 대회 등 축제 참여자들이 소중한 가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프로그램을 살짝 훑어보자!



▲ 축제 공연장 모습



장수의 밤하늘을 수놓다, 멀티미디어쇼

메인무대 뒤편 저수지를 배경으로 50m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명과, 음악, 미디어를 활용한 장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화려하게 구현해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읍·면 별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에서 통합해 진행한다.



▲ 노인의 날 기념식



음·면 대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는 180kg 한우곤포를 팀원(6명)이 맨손으로 들어 반환점(25m)을 돌아 출발선까지 1회 왕복 후 다시 출발선에서 곤포를 굴려 1회 왕복하는 경기로, 이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장수군 7개 읍·면 대항전으로 펼쳐진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장수 한우마당

전국 최대 규모인 2,500석의 한우 시식마당을 자랑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500석 규모로 축소해 한우마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자원을 갖춘 장수에서 길러낸 한우, 사과, 오미자 등 Red Food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



▲ 곤포나르기(여자부)



- 1
- 2
- 3

1. 곤포나르기(남자부)
2. 한우마당에서 역시 장수한우!
3. 맛있는 축제 즐기기





▲ 한우랑 사과랑 축제 공연장 객석

나도 가수다!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흥 많고 끼 많은 장수군민 모여라!
출중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뽐낼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장수군 스타를 발굴하는 가요제!

잠깐!

축제 참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이번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슬로건은
“백신맛고, 한우먹고, 사과먹고”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백신접종을 서둘러주세요!

새로운 문화관광 역사의 시작!

장수군 문화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

민선7기 군민과 함께한 3년, 장수군 문화관광은 어디까지 왔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막지 못한 유쾌하고 재밌었던 토크콘서트 현장!

군민들 앞에 선 장영수 군수는 직접 장수군 문화·관광지를 소개하고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토크콘서트의 뜨거운 시작을 알렸다.

‘민선7기 군민과 함께한 3년, 장수군 문화관광 새로운 역사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역민 50여 명과 장영수 군수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예방수칙이 철저히 지켜진 상황에서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 장수군 문화·관광과 관련한 정책 및 관광자원 소개와 사과나무 포스트잇으로 모아진 지역민들의 질문에 장영수 군수가 직접 하나씩 답했다.

‘장영수 군수가 생각하는 장수군의 대표 관광지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장수군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방안들에 대해 묻는 이색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2부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장수군 문화·예술·관광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과 관람객들과 군수가 직접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이 이어졌다.

특히 현장 ‘Free Q&A’에서는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군민들의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며 군민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콘서트는 형식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채워져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지만 우리 고장의 좋은 농특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의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번 문화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문화·관광이 발전해 오(5)고 싶은 장수, 살고 싶은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해 여름,



장수 누리파크 여름 물놀이장에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장수에 왜 오(5)고 싶고, 살고 싶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목표로 출발한 장수군 민선7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힘센 장수를 만들어 장수군민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고, 더 살기 좋은 장수를 건설하기 위해 장수군은 예산 4,000억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고 주요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중에서도 548정책을 내세워 6차 산업 실현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오(5)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 사(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8)기 좋은 유통환경을 조성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실현하고 있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장수군은 천천-장수IC 연결도로, 장수 하이패스 IC 설치, 달빛내륙철도 유치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오고 싶은 장수를 만든다.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주택 확대 및 교육문화복지 공간 확장 등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수만의 문화자원 특화로 대표성 확보

1차 산업 농업에서 탈피해 관광과 체험, 교육 등을 접목한 6차 산업 농업의 고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으로 장안산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육십령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관광,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구축한다.

또한 장수군은 가야역사관 건립 및 가야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장수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농촌 경관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연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군민 대상으로 복지 강화

장수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노인과 청소년, 여성과 보육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역 서비스 지원, 사회 복지심부름 수행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은 물론 공동육아나눔터 개설로 행복한 육아 기능 도시 조성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미용권, 행복택시 지원 및 효(孝)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 편자

“가야공감”을 위하여

이현석(장수군청 학예연구사)



▲ 침령산성 전경

“물의 으뜸”이라는 한자풀이에 걸맞게 금강의 발원지이자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물이 탁월한 지역, 장수군.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에서 장수는 항상 소외되어 왔다.

1993년 확인된 삼고리 고분군의 존재를 통해 고대 가야사의 한 축을 이뤘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여러 사유로 20여년 간 장수군의 가야문화는 잊혀졌다. 그리고 본격적 가야사 조사정비 사업이 시작된 지 약 4년이 흘렀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없는 장수군은 국비 지원 예산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나마 동춘리 고분군이 2019년 국가 사적 제552호로 지정되면서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가 28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국비 3억원 투입)를 진행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장수군은 1995년,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장수읍 동춘리 고분군,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장계면 장계리 고분군, 장수읍 노하리 고분군 등의 무덤떼에 대하여 활발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계면 삼봉리 봉화터, 산서면 오성리 봉화터, 장계면 영취산 봉화터, 번암면 봉화산 봉화터, 천천면 월곡리 봉화터, 계남면 침곡리 봉화터, 장수읍 원수봉 봉화터 등 봉화시설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장수읍 식천리 함미산성, 계남면 침곡리 침령산성 등 고대산성이 지속적으로 학술연구 되고 있다.



▲ 삼봉리고분군 전경



▲ 삼봉리 고분군 출토 객쇠





▲ 삼고리 고분군

이외에도 후백제 시기(다른 지역의 “라말여초” 시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장계면 대적골 철생산유적, 천천면 비룡리 철생산유적, 장수읍 무돌이골 철 생산유적에 대한 기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해 탐동마을을 중심으로 학술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군 최초의 국가사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삼봉리 고분군과 침령산성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삼고리 고분군, 대적골 철생산유적, 오성리 봉화터, 삼봉리 봉화터 등이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침령산성은 국가사적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장수지역의 가야관련 문화유산은 그 역사성과 가치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누구나 엄지를 척하고 세울 수 있는 금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를 건줄만한 편자, 단야구 3중세트 (망치, 모루, 집게), 오색옥, 환두대두, 금귀걸이, 범종, 약연 등 당시 장수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다.



▲ 봉서리고분 출토 금귀걸이



▲ 삼고리고분 출토 토기류

분명한 것은 장수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문화유산으로 가야의 영역확장은 물론 변방이 아닌 별도의 정치체계를 부여할 정도의 역사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수의 봉화시설을 운영한 “가야세력” 문헌 속 강력한 “가야세력” 그 이름을 찾으려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문헌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 견해 또한 철저히 검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수군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가야공감”을 통해 장수군민 모두가 ‘장수가야’를 받아들이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 복잡함은 단순하고 명쾌해질 것이다.

우선 “가야공감”을 위해 지역민에게 어렵기만한 유적지를 익숙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장수군민 누구나 알고있는 장수지역 가야유적지, 누구나 알고 있는 장수지역 출토 가야유물을 만들어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여야 한다.

장수군민 모두가 보고·듣고·느끼는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가야공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랑과 자긍심을 고취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역사관광자원 “명품화”를 추진한다면 ‘장수가야’는 우리군 미래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동네 장수의 몸보신 ‘어탕’을 아시나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고영양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그 시기를 견뎌왔다. 맛있는 음식으로 기력을 찾고, 다음 계절을 날 힘을 얻었던 것.

그 대표적 음식으로 삼계탕과 보신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장어, 흑염소 등 손꼽히는 보양음식들이 있다. 바닷가에서는 바닷가대로, 내륙지역은 내륙지역대로 지역마다 제철에 얻을 수 있는 특산물로 든든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견뎠다.

올 여름을 잘 이겨낸, 다가오는 가을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장수에서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이 있다.

단백질 한 그릇 장수 어탕

장수는 금강의 발원지이자 시작점인 고장이다. 장수 뜰샘에서 시작된 금강은 장수에서 시작해 무주, 충청도를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간다.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금강에는 송어, 꺾지, 동자개 등 수많은 민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래서 금강 유역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로 건강을 지켜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탕'을 기본으로 한 음식들이다.

장수 어탕은 물이 깨끗해 다종다양한 민물고기가 풍부한 강에서 갓 잡아낸 잡어와 온갖 채소를 넣고 푹 고듯이 끓여낸 서민음식이다. 이 어탕에 수제비를 넣으면 '어탕수제비'가 되고, 쌀을 넣고 둥근하게 죽을 쑤듯이 끓여내면 '어죽'이 된다.

쏘가리, 동자개, 메기 등 갓 잡은 민물고기를 통째로 두 시간쯤 삶으면 진하고 걸쭉한 국물이 나온다. 여기에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생강, 후춧가루 등 각종 양념을 넣고 한소끔 끓여낸 후 직접 반죽한 수제비를 넣고 좀 더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어죽 수제비가 만들어진다.

#향토음식
#몸보신
#장수만의 어탕
#장수어죽



센불에 강하게 끓여 잡내 없앤 '장수식' 별미

기존의 '어탕'을 순전히 자신만의 노하우로 발전시켜 만든 식당이 있다.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이 식당은 민물고기 특유의 흠냄새를 없애고 시원하고 얼큰한 어탕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양념을 개발했다.

이곳엔 또 다른 별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빠가탕'. 이곳은 메뉴가 어탕과 빠가탕 단 두 가지뿐인데, 지역민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 정갈한 반찬, 푸짐한 인심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천천면에서 장계면으로 금강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탕'을 베이스로 한 또 다른 맛집이 나온다. 바로 '어죽수제비'. 부드러운 어죽과 쫄깃쫄깃한 수제비가 만나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만든다. 얼핏 보기에 어렸을 적 자주 먹었던 김치 수제비 같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 진한 국물에 고소한 맛, 거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입 안에 걸쭉함이 더해져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며 그 지역만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음식을 '향토음식'이라 부른다.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몸보신을 위해 장수만의 '어탕'을 이어오고 있다면, 장수 어탕, 장수 어죽은 오래도록 계승될 장수의 향토음식이 되지 않을까.

산림자원이 풍부한 힐링도시 '장수'



▲ 육십령고개전경

Q. 전북 장수군의 산림 현황과 자랑할 만한 산림자원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장수군의 산림면적은 40,101ha로 장수군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활엽수림 40%, 침엽수림 38%, 혼효림 21%로입니다.

백두대간이 남덕유산~육십령~영취산~백운산~봉화산 구간을 지나며, 금남호남정맥이 영취산~장안산~사두봉~신무산~팔공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군에는 전국 8대 종산중에 하나인 장안산이 위치해 있어 가을에 억새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Q. 그동안 군의 산림정책을 이끌면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군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국비25억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 재배함으로써 임업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기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둘째는 장수군이 전국 최초로 건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용산지에서 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50억원 규모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셋째는 임업인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산림행정 일환으로 군 자체 '임업인 한마음 대회'와 '임업인 간담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 축산인 등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임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Q. 산림정책 추진에 있어 군수님께서 가장 중용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정책의 방향이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오.

장수군은 산림면적이 75%를 차지할 만큼 백두대간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산림정원, 산림레포츠 단지, 치유의 숲 등의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이 생산한 고품질 임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임산물 로컬푸드점 운영 등 적극적인 판매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장수군의 산림 자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주축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Q.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특히 산림의 휴양, 치유, 관광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장수군은 자체 운영하는 와룡자연휴양림과 방화동자연휴양림·방화동 가족휴가촌 등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휴양시설을 잘 갖춘 곳입니다.

장수군은 산림레포츠에 대한 산악관광 수요에 맞추어 2019년~2022년까지 54억원을 투입 장수군 임도를 활용한 산악 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코스 개발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경기대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2015년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가 지정이 되며, 2015년 ~ 2024년까지 73억원이 투자되는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12억원을 투자하여 가온누리길 재정비와 숲속탐방로 등이 조성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산수국, 목수국 등 수국류를 확장 도입하여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길 또한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수군 산림정책의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수군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미래가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비전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산림관리 구축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림재해 대응체계 마련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의 4대 목표를 세우고 산림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산림관리 구축을 위해 낙엽송, 자작나무, 소나무, 신갈나무를 대표 조림수종으로 효과적인 경제림으로 육성·관리하고, 산림 신품종 K-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숲에서 장수하는 미래 신품종 육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임산물 통합센터를 유치하고, 귀산촌 임대 주택사업과 귀산촌 임대농장 및 귀산촌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한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 LiDAR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과 기존 와룡자연휴양림·방화동가족휴가촌·치유의 숲을 연계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방화동가족휴양촌



▲ 와룡자연휴양림



▲ 장수오미자



▲ 장수사과

색도 효능도 강렬한 장수레드푸드



하루에 이것 하나면 병원 갈일이 없다 '사과 중에서도 명품 장수사과'

장수사과는 준고랭지, 큰 일교차, 생육시기에 따른 적절한 온도 등 최적의 조건에서 정성스럽게 재배된다.

영양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땅에서 자란 장수사과는 당도는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착색이 매우 뛰어나 국내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혈액순환을 높여 혈색을 좋게 하고, 비타민 A와 C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물섬유와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은 물론 변비나 대장암 예방,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특히 장수사과는 선별부터 보관까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일 년 365일 싱싱한 과일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장수사과로 만들어진 사과즙과 사과잼, 사과정과, 사과식초 등 가공 식품들도 생산되고 있어 개인 취향에 따라 맞춤형 건강식품 선택도 가능하다.



▲ 장수토마토
▲ 장수한우

오미자의 본고장에서 자란 빨간 열매 '장수 오미자'

장수오미자는 오미자를 전국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오미자의 본고장으로, 오미자의 자생 입지 조건과 비슷한 지리적 조건과 고랭지의 일교차를 가지고 있다. 장수오미자는 색깔이 선명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오미자의 최대 특징인 5가지 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수의 최고 특산물 중 하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미자는 몸이 허한 것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하고, 양기를 북돋아 주며, 술독을 풀어주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는 것을 호전시켜 주는 열매라고 했다. 각종 유기산과 칼슘, 비타민 C 등이 함유되어 피로 해소는 물론 간 기능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떠오르는 빨간 맛의 기적, 장수 토마토

장수토마토는 고랭지의 기후적 환경과 더불어, 깨끗한 땅에서 자라고 있어 모양이 우수하고 단맛과 신맛이 적절히 조화되어 그 맛이 일품이다.

건강하고 품질 좋은 토마토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농산물이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인 '라이코펜'은 탁월한 항암제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C의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마토 과육의 노란 부분에 있는 비타민 A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몸보신, 기력회복에는 장수한우가 최고

장수 육류는 해발 400~600m 이상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청정지역에서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초원에서 사육된다.

이 때문에 장수에서 생산되는 육류는 지방량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육색이 뛰어나 담백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해 철저한 질병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장수한우는 천혜의 자연과 영양이 풍부한 초원에서 순환농업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육돼 지방이 적고 육질·육색이 뛰어나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가열 후에도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일반 곡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아미노산 라이신과 황 함유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고급 단백질 식품으로 철분과 피를 만드는 조혈비타민 B12의 함유량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고 피부미용 및 피로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

장수포 농특산물, 잘 팔았네, 다 팔았네!

장수군은 전체군민의 68%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강군으로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이에 군은 지금까지의 지원체계와 생산중심에서 잉여 농산물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강화시키고, 통합적 마케팅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통합마케팅조직 등 전문유통조직 활력화 가이드 정립 추진

장수군은 상반기 농특산물 유통기반을 정비하고자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 및 공선조직 정비와 통합마케팅조직 취급량 증대를 위해 관련 사업 9개 분야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8개 분야 23억원의 전출금을 출자했고 하반기 우량한우 생산시스템 개발부분과 유전자 연구성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효율적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내 농업인들의 농산물 출하 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을 준공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였고 202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국비 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장수군은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9개 분야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e-커머스 활성화와 라이브커머스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며,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물의 운영 선진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물품의 하자나 불량시 신속한 배상체계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수 특산물 지원센터 운영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간판 제작, 공동브랜드 출하지원금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장수한우프라자, 덕유산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물빛공원 내 오미자힐링체험관 등을 통하여 장수군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 롯데백화점 내 장수한우 명품관을 2021. 6. 25일 오픈하여 명품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 장수한우 명품관 (전주롯데백화점)



▲ 장수한우프라자
▲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감도

농축산유통 미래비전 담은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사업은 500억원 규모로 2020년부터 치밀한 준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로 인정받아, 현재는 1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있는 전북 동부권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요구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 농축산물의 수매, 선별, 가공, 판매, 마케팅의 완성형 공급체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 설치된 APC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축산유통과 유통구조 개선 앞장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비품으로 분류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산물에 대한 1~2차 가공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장수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장수군 대표적인 5·4·8정책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땅, 장수를 힘차게 견인할 전국최고의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이 조성중에 있고, 장수 제철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잉여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된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8대 장수군의회 의회소식

[2021년 3분기]



2021년도 3분기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 2회 개최, 10건 의결

<조례안 7건, 예산안 등 2건, 결의안 1건>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6월 30일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7월 제328회 임시회까지 총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7건, 예산관련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 동안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에 예정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 안내

○ 기 간 : 2021. 9. 24.(금) ~ 9. 30.(목) [7일간]

○ 내 용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 승인 등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 최화식 의원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6월 30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1년 동안 이끌 위원장으로 최화식 의원을 선출했다.

최화식 의원은 행정 출신으로 장수군 계남면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수행했다.

최화식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사안에 대하여는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로 최선의 정책결정을 하여 신뢰받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로서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장수군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었던 한국희 의원은 사임의 변을 통해 “그동안 본인은 초선 의원으로서 과분한 임무를 부여받아 왔지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해 뜻을 펼치시지 못한 의원분도 계시므로 동료 의원들과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1년을 남은 시점에서 행정복지위원장 직을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 최화식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7월 13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 등을 위해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실, 산림과를 시작으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군민의 입장에서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지난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최종 확정된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수군에 KTX가 정착하는 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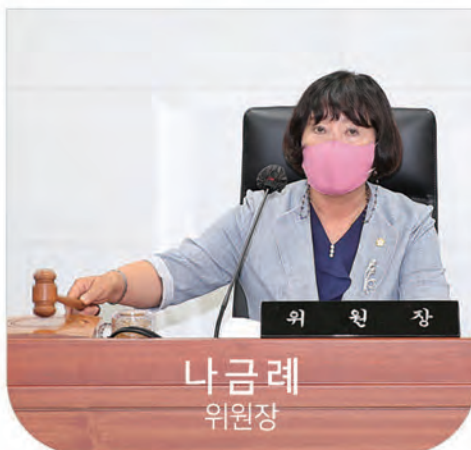
2021년도 3분기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심의·의결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1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화식)는 2021년 3분기에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8건 심의·의결
[조례안 7건, 기타 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금례)에서는 2021년 3분기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희 의원) 등 의원발의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의원 발의 조례



장정복 의원 :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희 의원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3분기 특별위원회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을 구성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문)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성, 선심성, 불균형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장수군수가 승인 요청한 당초 본예산 대비 4.33% 증액된 4,443억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4건 21억36백만원은 감액하고, 감액 금액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여, 총예산액 4,443억원(일반회계 4,010억원, 특별회계 423억원)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QA 군정질문



제328회(2021. 7. 13)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의원은 군정질문에 나서 '장수읍 용계선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인근 주민 및 농업인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마련을 위하여 해당 노선의 정비를 군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7월 19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화식 의원은 “장수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장수-장계 구간의 우회도로 개설 및 시설 개량공사를 관리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1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지만, 2020년 11월부터 시행사와 감리단의 갈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 미비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공사 중지로 집중호우 발생 시 농경지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배가될 수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기대했던 장수군민의 바람이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자연재해 시 피해 위험이 있는 공사 구간의 신속한 보완 조치뿐만 아니라,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조속히 재개 할 것”을 요구했다.



군민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군민과 소통 · 공감으로 큰 호응

장수군은 8월부터 장수군청 1층 작은 도서관 내에 위치한 열린군수실에서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군 '열린 군수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이 어려워진 점을 해소하고 민원과 건의사항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군수가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생생한 군민의 여론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소통 민원 창구이다.

'열린 군수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수로 설치 등 다양한 민원을 가진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와 장영수 군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군정, 지역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군수와 직접 면담이 가능하며 군민들이 제안한 사항 중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실제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군민과의 소통이 제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린 군수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10~12시, 오후2~4시 2차례에 걸쳐 군수가 군민과의 상담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오후2~4시에는 부군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장수군민이라면 군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열린 군수실 운영 관련 문의사항은 장수군 행정지원과 군민소통팀(☎063-350-2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www.장수몰.com **장수몰** JANGSU MALL

NAVER

장수몰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21. 10. 28 (목) ▶ 31 (일) 3일간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

주최 장수군 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복합 go!

한우 go! 사과 go!

